

# 시베리아동부 바이칼 일대의 고고유적과 문화

## - 프리바이칼 소해협과 자바이칼 울란우테의 주요유적을 중심으로 -

김동훈\*

### 1. 머리말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지난 2000년부터 러시아과학원 시베리아지부 고고학 민족학연구소와 공동연구를 진행하여 왔다. 아무르 강 하류 수추섬 신석기시대 주거유적, 연해주 동해안 볼로치카 철기시대 주거유적, 아무르 강 중류 발해말갈시대의 트로이츠크예 고분군, 오시노보예 오제로 주거유적 등 극동과 연해주 일대를 중심으로 한 다수의 주요유적이 공동 조사되었다. 이를 통해 민족문화의 주요한 기원지이자 문화전파의 통로로서 러시아 극동 지역에 대한 관심을 국내 학계에 환기시킨 바 있다.

지난 10년간의 공동발굴조사에 이어 2010년 6~7월에는 시베리아 동부 바이칼 일대에 대한 유적분포현황조사를 실시하였다. 프리바이칼 소해협 일대와 자바이칼 울란우테 근교러몽국경지역인 카흐타 일대 등을 대상으로 수행된 바이칼 일대 유적분포현황조사는 그간 막연하게 우리 민족문화의 시원으로 언급되어 온 바이칼 유역의 고고유적에 대한 고고학적 조사를 실시하여 유적의 분포현황과 성격, 역사문화적 위치 등을 파악하고 시베리아 동부 일대와 한반도의 선사에서 중세까지의 문화적 상호관계와 교류상을 밝히려는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유적분포현황조사는 대부분 기 알려진 유적의 현황을 파악하면서 지표유물 수습 등의 작업을 겸하고 있다. 또한 발굴이 진행 중인 유적을 답사하고 유물이 소장된 인근 대학 연구실과 박물관 등을 견학하여 유물조사를 수행하는 등 시베리아고고학의 최신성과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에는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윤광진, 이규훈, 김동훈, 임누리와 러시아 과학원 시베리아지부 고고학민족학연구소의 세르게이 네스테로프, 블라디미르

---

\* 국립문화재연구소 고고연구실

므일리코프, 류드밀라 르보바, 이르쿠츠크 대학교의 올가 고류노바, 알렉세이 노비코프 등이 참여하였다.

## 2. 시베리아동부 바이칼 일대의 고고문화<sup>1)</sup>

시베리아는 소비에트 성립 이후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지역권 구분에 따라서 자우랄, 서시베리아, 남시베리아, 동시베리아, 극동지방, 북동아시아 등 6개의 권역으로 세분되며, 자연환경에 따라서는 크게 서시베리아 평원지대, 사얀-알타이 산맥지대, 중부시베리아 고원지대, 동북아시아지역 등의 지형대로 구분된다. 이 중 본문에서 언급하는 바이칼 일대는 지역권으로는 동시베리아에, 자연환경으로는 중부시베리아 고원지대의 남쪽에 위치한다.

### 2.1. 바이칼 일대의 구석기문화

보옌느이 고스피탈(군병원) 유적은 시베리아를 비롯한 러시아 전체에서 가장 먼저 발견된 구석기유적이다. 체르스키와 체카노프스키에 의해 1871년 이르쿠츠크시의 앙가라 강 근처에서 풍부한 4기 동물상과 함께 많은 석기와 골각기가 출토되어 알려졌다. 이 밖에 2기의 어린아이 두개골과 이빨 등이 발견된 말타 유적 등이 잘 알려져 있다.

### 2.2. 바이칼 일대의 신석기문화

1880년 비트콥스키가 키토이 하천에서 발굴을 시작하면서 키토이 신석기시대 문화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러시아혁명 전기에 주로 러시아 지질학회가 앙가라 강 유역의 석기시대 유적을 발굴하면서 키토이문화를 확인하였고, 1920~1960년대 오클라드니코프에 의해 앙가라 댐 수몰지구 조사, 부리야트지역 조사 등 체계적인 발굴이 실시되었다. 1950년대 이후에는 이르쿠츠크 고고학조사단이 무덤유적 및 주거유적을 발굴하였다. 자바이칼에서는 19세기에 처음 신석기시대 유적이 확인된 이후 1980년대부터 이바니시나에 의해 다양한 문화기가 정리되었다.

1) 최몽룡·이헌종·강인욱(2003), 『시베리아의 선사고고학』에서 인용, 정리

### 2.2.1. 프리바이칼지역의 신석기시대

19세기 말 고고학 발굴을 통해 알려졌으며, 시베리아 고고학의 서장을 여는 역할을 하였다. 프리바이칼지역은 바이칼 호수부터 앙가라 강 유역까지를 일컫는데, 이르쿠츠크주 및 크라스노야르스크의 서부, 크라스노야르스크 내부의 예벤키자치구 남부 등에서 발견된 신석기시대 유적들을 포함한다.

#### 2.2.1.1. 키토이문화

신석기시대 중기에서 말기에 걸친 문화로 프리바이칼에서 최초로 정식 발굴된 고고문화이다. 1880년도 비트콥스키에 의해 명명된 이후, 시베리아고고학이 프리바이칼을 중심으로 발전하게 되는 계기가 된 문화이다. 키토이문화의 고분은 부정형의 알개 판 토광(석판 설치 예는 거의 없음), 신전양와장, 시신 주위에 뿌린 황토, 토기는 적은 양만 출토되나 낚시바늘 등 어로도구가 많이 출토된다는 사실, 골제 원통막대·가·물고기형 장식품·새머리가 새겨진 골제 조각 등의 장식품 출토라는 특징이 있다. 연대는 B.C.5,000년기~B.C.4,000년기 중반이다.

#### 2.2.1.2. 이사코보문화

오클라드니코프에 의해 발굴된 이사코보 고분을 통해 명명되었고, 앙가라 강 유역에 주로 분포하며 고분 자료가 다수이다. 신전양와장으로 묘광은 깊지 않으나 시신 주위 및 상부를



<그림 1> 키토이문화 출토유물 (최몽룡 외 2003:1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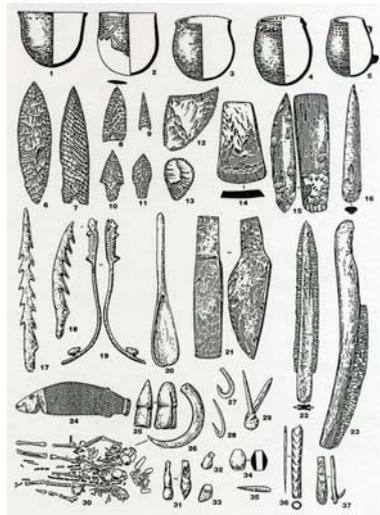


<그림 2> 이사코보문화 출토유물 (최몽룡 외 2003:170)

석판으로 덮였으며, 일부 석판은 지상으로 노출되어 마치 즘석한 것처럼 보인다. 주로 단인장이며, 시신 주변에 황토의 흔적이 확인된다. 사냥과 관련된 유물이 공반 출토되는데, 삼각형 석촉이 거의 모든 무덤 안에서 날부분이 발 쪽을 향한 채 군집되어 발견되었다. 시신의 발끝에 놓인 토기는 높이·구경 20cm 내외의 첨저포탄형으로 토기 표면의 망상문으로 보아 표면을 그물 같은 것으로 덮어서 두드린 것으로 추정되며, 그 외 구연부 근처에 공열문 혹은 단사선문이 존재하는 특징이 있다. B.C.5,000년기 후반~B.C.3,000년기 중엽 사이에 존속한 고고문화이다.

### 2.2.1.3. 세로보문화

토기의 형식과 문양은 이사코보문화와 매우 유사하며, 다른 문화와 달리 주거지가 다수 발견되었다. 이사코보문화와 비슷하게 토광을 파고 그 둘레를 석판으로 둘러싼 것지만 석판이 더 크고 정교하게 배치되어 있어 일부 석판묘로 볼 수 있는 것도 존재한다. 첨저포탄형의 토기 중 일부에서는 저부를 향한 삼각형 파수가 존재한다. 토기 표면은 그물 같은 것을 덮어서 표면을 만든 후 정면구로 정면을 하고 구연부에는 반관통 공열문을 시문한 경우와 긴 사선문이 횡렬로 압인되고 구연부에 각목이 된 경우로 구분된다. 낚시바늘·작살·물고기모형·어망추 등 어로도구가 다수 발견되었다. 후기 세로보문화에는 판암계 석제의 낚시바늘 몸통에 골제·목제·판암계의 낚시바늘 끝을 달아 조립한 조합식 낚시바늘이 확인되어 한반도 신석기시대 조합식 낚시바늘과의 유사성이 주목된다. 주거유적에서는 돌로 외곽을 둘러싼 노지, 훈제고기와 절인 물고기를 저장하기 위한 대형 저장공이 확인되었고, 주거지는 원추형 천막이나 막사형의 지상가옥으로 추정된다. 연대는 B.C.4,000년기 중반~B.C.3,000년기 말엽이다. 세로보문화 이후에는 초기청동기시대인 글라즈코보문화가 이어진다.



<그림 3> 세로보문화 출토유물  
(최몽룡 외 2003:177)

## 2.2.2. 자바이칼지역의 신석기시대

자바이칼은 프리바이칼과 인접한 서부 자바이칼(부리야크자치공화국)과 동쪽의 아무르 강 상류에 속하는 동부 자바이칼(치타주)로 구분된다. 자바이칼 지역의 신석기시대는 대형의 자갈과 소형의 격지가 주가 되는 석기제작기법이 지속되었다. 그리고 끈을 이용해서 압인한 문양이 초기의 토기에서부터 말기까지 지속되어 다른 지역보다 승석압인문이 빨리 출현하기에 자바이칼지역이 승석압인문의 발생지로 추정되고 있다. 그리고 매장풍습은 대부분 굴신장이며, 후기 구석기시대 최말기의 유물에서 중기 신석기시대까지 문화양상은 큰 변화없이 지속된다는 특징이 있다. 이를 근거로 몽골과 자바이칼지역의 경우 후기 구석기시대 최말기에서부터 문화가 지속되고, 또 현생 원주민의 문화와 일면 유사성이 보인다는 점에서 통구스-만주어족의 기반인 동시베리아-극동원주민의 기원이 신석기시대로 소급된다고 보기도 한다.

## 2.3. 바이칼 일대의 청동기문화

### 2.3.1. 동석기시대 - 글라즈코보문화

바이칼 서쪽 프리바이칼지역의 초기 청동기시대 문화로 프리바이칼지역에서 이르쿠츠크를 중심으로 셸렌가 강 및 레나 강 상류지역에서 북쪽으로는 산림지역까지 주로 분포한다. 1914년 고로드초프에 의해 명명되었고, 1950년대 오클라드니코프에 의해 본격적으로 연구되었는데, 신석기시대 특징이 지속되면서 동으로 만든 도구가 출토된다는 특징이 있다. 주로 무덤유적으로 알려졌는데 묘광이 깊지 않은 토광묘가 주를 이룬다. 부장된 토기는 주로 원저 또는 점저형의 심발형토기이나 후기로 가면서 평저토기가 출현한다. 문양은 압인빚살문과 압인격자문이 주를 이루며 구연부에는 반관통한 공렬이 돌아가기도 하



〈그림 4〉 글라즈코보문화상과 출토유물  
(최몽룡 외 2003:304)

며 구순에는 단사선문, 압인격자문이 새겨지기도 한다. 동제품은 무덤에서만 발견되며, 칼·낚시바늘·송곳·바늘·팔찌 등이 확인되었다. 골각기로는 바늘, 손가락, 송곳, 뚜르개, 바늘통 등이, 석기로는 타제의 굽개, 석도, 마제석부 등이 있고, 맘모스뼈로 만든 인형들과 개구리·사람얼굴 등을 표현한 예술품도 출토되었다. 출토 인골은 분석 결과 고몽골인계통으로 확인되었다. 연대는 B.C. 3,000년기 말엽에서 2,000년기 초반으로 소급되며 하한은 불명확하다.

### 2.3.2. 초기청동기문화

서부 자바이칼의 초기 청동기시대 유적은 주거유적인 하르가-1 유적과 무덤유적인 포파노보 유적이 대표적이다. 기본적인 문화상은 글라스코보문화와 유사하여 자바이칼에 분포한 글라스코보문화의 지방유형으로 간주된다. 동부 자바이칼은 도로닌문화와 오논문화로 구분된다.

자바이칼 초기 청동기시대에 나타나는 기본적인 고고학적 문화상은 신석기시대의 특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토기에서는 압인격자문이 출현하고, 극히 소량이지만 동기·청동기 편이 출현하며, 석기 가공기술의 변화 등을 특징으로 한다.

### 2.3.3. 후기청동기문화 - 초기판석묘문화인 드보르초이문화

자바이칼 청동기시대를 대표하는 유구인 석판묘는 가장 많은 연구가 축적된 부분이나 복잡한 묘제 구성, 발굴유물의 빈약 등으로 많은 의문이 잔존해 있다. 석판묘를 기반으로 하는 후기청동기문화는 그 유물과 묘제 상의 특징에 근거해서 드보르초이문화와 판석묘문화로 구분된다.

드보르초이문화는 1974년 처음 확인되었다. 드보르초이·알렉산드로프카·다라순·칼리노프카 유적 등이 알려졌는데, 무덤은 석판묘로 4~8m 정도 타원형 또는 말각방형의 묘역에 적석을 하고 그 가운데 묘광을 설치한 것으로 묘광은 2~3m 정도의 폭에 1~1.5m 정도의 깊이이며, 묘광 내부 충전토에도 괴석이 다량 포함된다. 시신은 신전장이며, 판석묘문화의 묘제와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무덤 내에 예외 없이 양·말·소 등의 뼈가 부장되었다는 사실이다. 카라숙문화기와 평행한 연대로 B.C.12~8세기에 해당된다.

드보르초이문화기의 특징적인 유적으로 후기청동기시대의 거석물인 사슴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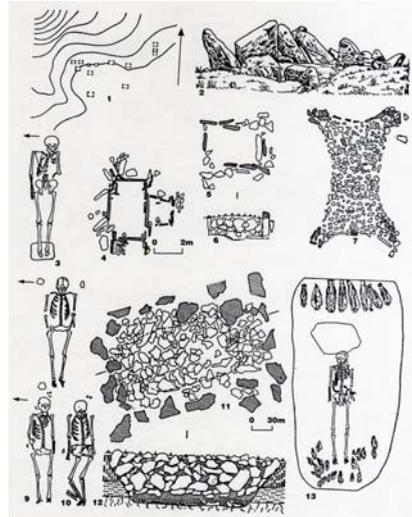
(鹿石, Stag Stone)이 있다. 자바이칼 전역을 포함하여, 알타이공화국, 투바공화국, 몽골, 중국 신강성 위구르자치구 등지의 카라숙시기(B.C.13~9세기)에 널리 분포하는데, 단순히 사슴이 새겨져 있는 돌이 아닌 유라시아초원지대에 펼쳐져 있는 거석기념물을 통칭하며, 형태는 보통 직사각형이나 석판형·부정형·다각형 등도 확인되고 있다.

문양은 상하 2개의 횡선에 의해 3부분으로 구분되는데 전반적으로 무사를 상징하거나 별다른 구획 없이 양식화된 사슴으로 채우기도 한다. 보통 때를 지어서 일렬 또는 이열로 늘어서 있으며 주변의 케렉수르<sup>2)</sup>와 함께 하나의 제사유적을 이루는 경우가 많다. 사슴돌 주위에도 사각형으로 석판을 세워서 구역을 정하고 그 안에 얇게 적석을 한 경우도 확인되고 있다.

사슴돌은 고대인의 제사의식을 위한 시설물로 이란·우랄 등에서도 비슷한 형태가 존재하기에, 스키토-시베리아 유형처럼 넓은 지역에 분포했고, 이는 유목 및 기마에 근거한 여러 문화가 비슷한 형태의 제사유적을 공유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 2.3.4. 자바이칼 일대의 판석묘문화

자바이칼을 중심으로 하는 일부 프리바이칼과 동부 몽골을 중심으로 분포하는데, 셀렌가 강, 쥐드 강, 치코이 강, 힐카 강, 우디 강 등의 삼림초원지대 및 스텝지대가 중심이다. 판석을 이용하여 무덤주위를 둘러 쌓는 묘제가 특징인데,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은 거의 없고 대부분 수십 기가 때를 지어서 분포하며 일렬로 늘어서 있다. 보통 5~20여 기가 군집하는데, 발지노 유적은 100여 기가 군집하는 대규모 유적이다. 가끔 시신 주위에 향토를 뿌린 것도



<그림 5> 판석묘 매장구조  
(최몽룡 외 2003:417)

2) 중앙의 원형 적석유구, 그 주변의 방형 또는 원형의 석렬, 석렬 외부의 작은 부속 시설로 구성된 구조물로 몽골에서는 ‘히르기수르’라고 부른다. 중앙의 적석유구 하부에서 매장시설이 확인된 적이 별로 없고 유물도 출토되지 않아 그 성격에 대해 논란이 있으나, 매장유구로 추정된다.

확인되며, 무덤 크기는 2×1~3×2m 정도이다. 묘광 깊이는 0.5~1.5m이며, 묘역 가장자리에 석판을 세우기도 하며, 가끔 그 중 사슴돌도 확인된다. 인골의 주위(주로 두부나 족부)에 말머리를 비롯한 수골의 머리부분이 부장되기도 하며, 묘광 안에는 석판을 이용해서 무덤관을 제작하는데, 때로는 석판을 2-3열 겹치게 쌓기도 하였다. 부장된 청동기는 동검, 동도, 동부, 바늘, 송곳, 동촉, 동복 등이다. 판석묘문화의 분포지는 사슴돌의 분포와 거의 부합한다.

토기는 심발형토기와 삼족기로 구분되는데, 심발형토기는 평저에 직립구연이며 구연부에 2-3줄의 덧띠를 두르고 그 위에 단사선문을 새겼다. 문양은 주로 동체 상부에 단사선문을 새긴 것이 대부분이다. 삼족기는 구연부에 덧띠를 두르고 동체 상부에 단사선문을 종렬로 이어 표현하였는데, 오클라드니코프는 이를 가죽그릇을 모방한 것으로 보고 유목민족의 전통이 표현된 것으로 간주하기도 하였다.



<그림 6> 판석묘 부장 유물  
(최몽룡 외 2003:419)

주거유적은 카멘카-2, 비추라 유적 등 250여개 이상이 확인되었다. 석핵·석도 등의 세석기기법이 사용되었고, 청동기는 송곳·바늘·단추 등 소형에만 한정되어 발견되었다. 토기는 삼족기가 주를 이루며 후기 유적에는 파랑문, 덧무늬 등 흉노시기의 특징이 보이는 것도 출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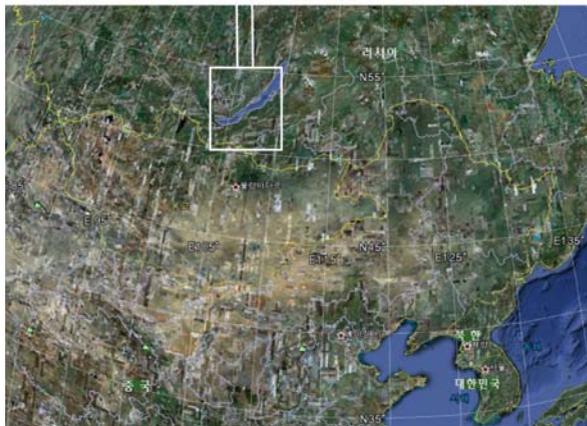
판석묘문화 주민들은 빈번한 수골의 부장과 기후조건, 농경도구와 같은 농경증거가 전혀 없는 점 등을 통해 주로 목축으로 경제를 영위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청동제련기술은 상당한 수준이며, 출토인골의 분석 결과 전형적인 몽골로이드계로 확인되었다.

울란우테 근처에 있는 사얀투이 유적은 판석묘문화의 성격을 밝히는데 결정

적인 계기가 된 유적으로 동검·골제삼익촉·원통형 장식 등이 발견된 바 있다.

판석묘라는 묘제로 본다면 그 범위는 자바이칼-만주-티벳이라는 넓은 지역에서 상사성이 보이지만, 현재 판석묘문화는 자바이칼과 몽골공화국의 동쪽에서만 알려져 있고, 중국 경내에서는 내몽고의 함오랍(哈烏拉) 유적 등이

확인된 바 있다. 판석묘문화는 동아시아의 청동기시대 특성을 잘 보여주는데, 우랄지역에서 프리바이칼에 이르는 지역은 청동기 시대에 카라숙, 타가르문화 등 시기에 따라 큰 문화적인 변동이 보이는 반면 자바이칼·동몽골지역은 오랜 기간 한 묘제를 사용하였다. 판석묘라는 묘제는 돌널무덤을 주로 사용하는 길림성의 서단산문화, 요동지방의 개석묘, 돌널무덤, 한국의 고인돌(개석식 고인돌)과도 유사성이 존재하여 향후 활발한 연구가 필요한 분야이다.



<그림 7> 시베리아 동부 바이칼 일대 주요 유적 분포도

### 3. 시베리아 동부 바이칼 일대의 고고유적

#### 3.1. 프리바이칼 일대의 고고유적

##### 3.1.1. 사휴르테-1 (Сахюрте-1) 암각화

양가 강 주변 사휴르테 산의 정상부에 위치한 암각화로 4개 지점이 확인되었다. 새겨진 암각화는 신

석기시대에 그려진 것으로 보이는 말 그림과 철기시대 후기에 그려진 것으로 보이는 사슴떼, 철기시대 이후의 것으로 보이는 또 다른 말 그림 등이 확인되며 전체적으로 사슴떼가 암각화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사휴르테-1 암각화 원경

암각화가 있는 바위면

주요 암각화 세부

&lt;그림 8&gt; 사휴르테-1 암각화 원경 및 암각화 세부

### 3.1.2. 사휴르테-3(Сахурте-3) 의례유적

사휴르테 산의 정상부 암각화가 있는 바위 주변 9부 능선을 에워싼 돌담 및 그 내부에 제단 시설과 구조물의 기초흔적 등의 시설이 산재하고 있다. 돌담은 산의 북편 부분에 잘 남아있는데, 높이 80cm까지 잔존하는 구간도 확인되었다. 산의 정상부 평탄면에는 적석한 돌담이 4기 존재하며, 무너진 수기의 돌담도 확인되는데 동서와 남북 방향으로 열을 짓고 있는 듯 배치되어 있으며, 의례용 북이나 짐승의 두개골을 걸기 위한 기둥을 배치했던 구조물의 일부일 가능성이 존재한다. 돌담 내의 남쪽 공간에는 큰 판석이 여러 조각으로 깨져 있는데 희생물을 제사 지내기 위한 재단으로 추정된다. 유적의 동쪽으로는 부리야트족의 성지인 ‘벨라야 스칼라’라는 독립된 작은 바위산이 300~400m 떨어져서 위치한다.



사휴르테-3 의례유적 전경

의례유적 북편 돌담

유적 정상부 전경

&lt;그림 9&gt; 사휴르테-3 의례유적 전경 및 세부

### 3.1.3. 구르비 누르(Гурби нур) 암각화

1990년대 발견되었으며 스텝지대의 노출된 바위덩어리에 새겨진 암각화이다. 사슴 등의 동물이 바위의 오른쪽에, 활시위를 당기는 말 탄 사냥꾼이 왼쪽에 선각되어 있는데, 10여 마리 되는 동물들의 발 자세가 다양하여 사실적인 인상을 준다. 태양을 상징하는 ‘+’ 문양이 확인되며, 중심 암각화의 위쪽에는 늦은 시기에 그려진 추상적인 인물상이 존재한다.



유적에서 본 주변풍경

암각화바위면 전경

암각화 세부

<그림 10> 구르비 누르 암각화 주변전경 및 암각화 세부

### 3.1.4. 시베테-1(Шибэтэ-1) 돌담 · 의례유적

프리바이칼 소해협 시베테 곳에 있는 돌담(성곽)유적으로 5~10세기 쿠카니족이 축조한 것으로 추정된다. 돌출된 곳의 남사면 5부 능선과 7부 능선에 2열의 돌담이 상하로 축조되어 있으며 5부 능선에 있는 아래 돌담은 길이 250여m, 높이 평균 1.5m 정도(내면 높이는 80cm 정도)이며 최대 높이가 3m에 이르는 지점도 존재한다. 위 돌담은 아래 돌담보다 잔존상태가 불량하며 현재 잔존상태가 가장 좋은 부분의 높이는 외면 80cm(내면 50cm) 정도이고 중간 중간 무너진 부분이 많다. 아직 발굴된 적은 없고, 곳의 북쪽과 동쪽은 자연절벽이어서 돌담이 축조되지 않았다. 돌담은 기반암과 큰 괴석을 기초로 하고 그 위에 부정형의 석재를 쌓아 올렸으며, 아래 돌담에는 동서 2개의 문지가 잔존한다. 아래 돌담과 위 돌담 사이의 일부 구역에서는 주거지의 흔적으로 보이는 돌구조물이 일부 확인되었다. 유적 정상부는 현대에 쌓은 돌담이 수 기 있으며, 그 외 별다른 시설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시베테-1 유적 전경

돌담 내면 세부 전경

돌담 외면 세부 전경

&lt;그림 11&gt; 시베테-1 의례유적 전경 및 돌담 세부

### 3.1.5. 하르고이-2(Харгой-2) 돌담 · 주거 · 무덤유적

바이칼 호에서 가장 큰 올흔 섬 내부에 있는 돌담과 그 내부 주거·무덤유적으로 5~10세기 쿠카니족이 축조한 것으로 추정된다. 19세기 말 체르스키에 의해 처음으로 알려졌다. 바이칼 호변의 돌출된 곳을 돌담이 에워싸고 있는데, 돌담은 썩기형의 큰 돌을 쌓고 그 내면에 작은 돌을 채워 넣는 방식으로 축조하였다. 돌담 상단에 수직으로 돌(높이 1.5m 내외)을 세운 것이 다수 확인되며, 넘어진 돌들을 감안하면 축조 당시에는 돌담 상단에 돌들을 열지어 배치한 것으로 보인다. 돌담의 바깥쪽에는 폭 3m, 깊이 1m 정도인 해자가 확인되었다. 돌담은 전체적으로 ‘U’의 형태이며, 동문지에서는 내부 옹성시설이, 돌담 주변에는 용도 미상의 방형으로 구획한 공간이 확인되고 있다. 돌담의 무너진 폭은 2~5m 정도로 다양하다. 돌담 남쪽 공간의 완만한 경사면에는 강한 북서풍을 막기 위한 주거용 돌담이나 가축을 가두는 우리 등의 시설 잔존물이 여러 지점에서 확인된다.



하르고이-2 유적 전경



돌담 외면 세부 전경



돌담 상면 전경



돌담 상면 잔존 선돌

&lt;그림 12&gt; 하르고이-2 유적 전경 및 돌담 세부

### 3.1.6. 샤만(부르한)바위 내 샤만동굴(Шаманская пещера)

샤만바위는 올혼 섬 내 후지르마을 뒤편 언덕길을 오르면 보이는 시베리아 샤머니즘의 성지로 두 개의 우뚝 솟은 바위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바위산을 포함하는 주변 모두가 부리야트인들에게는 성지로, 특히 샤만바위에는 샤만만 접근이 가능했다고 한다.



샤만바위 전경

샤만동굴 입구 전경

샤만동굴 출구 전경

<그림 13> 샤만바위 전경 및 샤만동굴 세부

작은 바위의 정상부 아래에 위치한 샤만동굴은 출구에 고대 암각화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현재는 관광객의 낙서로 인해 확인되지 않는다.

동굴은 신석기시대, 청동기시대, 철기시대, 중세시대를 거쳐 근대에 이르기 까지 전시대에 걸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러시아 혁명 이전까지 부리야트 샤만이 직접 의식을 지냈으며, 지금도 매년 여름 행사가 재현되고 있다.

### 3.1.7. 쿠르크트-1(Куркут-1) 무덤 · 의례유적

약 1.5km에 걸쳐 120기 이상의 무덤·의례구조물이 확인되는데, 60기 이상이 발굴조사되었다. 철기시대후기의 석조의례구조물과 몽골시대의 무덤 등이 혼재하는 복합유적으로, 11~13세기 몽골시대의 무덤은 유적의 남쪽에 있는 큰 괴석과 인접하여 위치한다.

‘샤트로바야 클라드카(Шагровая Кладка)라는 독특한 석조의례물이 다수 확인되었는데 주로 판석을 박아 방형으로 구획하고 그 내부에 태반을 넣은 토기를 안치한 후 판석을 비스듬하게 세워 쌓아 사각뿔 모양으로 만드는데, 민족 지에서는 나무로 축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보통 5~10세기로 편년된다.



유적 내 몽골시대 무덤

샤트로바야 클라드카1

샤트로바야 클라드카2

&lt;그림 14&gt; 쿠르쿠트-1 의례유적 내 몽골시대 무덤과 샤트로바야 클라드카 전경

### 3.1.8. 하다르타-4(Хадарта-4) 고분군

프리바이칼 소해협 북서편에 위치한 청동기시대 고분군으로, 언덕 경사면에 최대 깊이 50cm 정도의 토광을 3×4 혹은 4×4m 정도 파고 시신과 청동 유물, 토기 등을 안치한 후 그 위에 판석을 덮어 축조하였다. 총 16기의 고분이 확인되었는데 그 중 5기의 고분이 발굴조사되었다. 출토된 토기 중 구연부에 반관통 공렬문이 2열 시문되고 원저이면서, 동체기벽에 손에 손을 잡은 인물이 선각된 토기도 확인되었다.



하다르타-4 고분군 전경

유적 내 조사전 토광묘

유적 내 출토 인물문 토기

&lt;그림 15&gt; 하다르타-4 고분군 전경과 출토유물

### 3.1.9. 사르마-6(Сарма-6) 무덤 · 의례유적

철기시대와 근현대에 걸친 무덤들의 복합유적으로 17~18세기 부리아트인의 무덤은 큰 바위를 이용하여 매장주체부를 구성하는데 바위 사용부 외의 부분은 판석으로 측벽을 조성하고 시신을 안치한 후 다시 판석을 덮은 구조로 2m 이상 되는 판석을 축조시 사용하기도 하였다. 여성은 은제 팔찌·반지 등

장신구를 함께 부장하나 지상에 노출된 구조 때문에 도굴을 많이 당하였다.

언덕의 남쪽 사면에는 2×3m 정도 되는 철기시대의 판석묘도 확인되는데 큰 판석 1매씩을 네 방향에 세워 박은 구조로 자바이칼 철기시대 판석묘 축조인들의 이주와 관련된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



근대 부리아트인의 무덤

철기시대 판석묘1

철기시대 판석묘2

<그림 16> 사르마-6 고분군 내 선사·근대 무덤 세부전경

### 3.1.10. 하로고이-2(Харогой-2) 적석유구



<그림 17> 하로고이-2 적석유구  
측면 및 상면 전경

부리아트인이 축조한 것으로 추정되는 적석유구로 가장자리에 큰 괴석을 길게 세워 박고 그 내부에는 잡석을 뺏뺏하게 채워 넣은 독특한 구조이다. 적석유구는 십여 개소가 확인되며, 용도는 미상이나 의례장소나 무덤보다는 투기(投棄)장소나 저장소로 추정된다.

### 3.1.11. 사르민스키 모스트-3(Сарминский мост-3) 고분군

17~19세기 부리아트인들의 고분군으로, 매장주체부의 장축은 판상으로 돌출된 암맥을 이용하고 단축은 판석을 쌓아올려 시신 안치 공간을 마련한 후 그 위에 큰 판석을 올려 완성한 지상식 무덤이다. 피장자를 안치하기 위해 사용한 썰매 등의 시신운반용구를 함께 부장하기도 하며 매장주체부 내부에 서는 인골이 확인되기도 한다.



유적 전경

유적 내 고분1

유적 내 고분2

&lt;그림 18&gt; 사르민스키 모스트-3 고분군 전경 및 세부

### 3.1.12. 사간 자바-1(Саган Заба-1) 암각화

프리바이칼 대해협 호변에 있는 암벽에 새겨진 암각화로 청동기~철기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지상과 천상을 연결하는 신성한 동물로 여겨진 백조, 말 탄 무사, 출산 중인 여성, 여러 명의 샤만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암벽은 동쪽을 향하고 있다.

현재 암각화가 있는 암벽면의 훼손이 심해 상당부분은 사라진 것으로 추정되며 바이칼 호 인근의 암각화 중에서 가장 다양한 주제를 포함하고 있는 대표적인 암각화이다.



사간 자바-1 암각화 전경



암각화 세부(백조)

암각화 세부(출산하는 여성)

암각화 세부(샤만)

&lt;그림 19&gt; 사간 자바-1 암각화 전경 및 세부

### 3.1.13. 탈치 목조건축박물관

이르쿠츠크에서 리스트반카로 가는 바이칼 고속도로 상에 위치한 민속촌으로 1969년 ‘소수민족 문화재보호법’ 통과 직후 조성된 야외 목조건축박물관이다. 부리야트족의 게르·샤만의 집, 17세기 말 일림스크 요새의 감시탑과 카잔교회 등 주로 17~19세기 바이칼 호 일대에 거주한 부리야트족과 러시아인의 건축물 40여 채와 그 유물들이 전시 중이다. 시베리아 원주민인 에벤키족의 전통주거와 고구려의 부경을 닮은 고상창고도 복원되어 있다.



부리야트 샤만의 집 내부



부리야트 샤만의 집



에벤키족의 여름주거



에벤키족의 고상창고

<그림 20> 탈치 목조건축박물관 세부 전경

### 3.1.14. 이르쿠츠크 예술박물관

올가 고류노바 선생이 30여 년간 프리바이칼 일대에서 발굴한 주요 유물 중 선사시대 예술품만을 선별한 고대예술품전시관이다. 후기구석기시대 말타 유적의 골제예술품, 신석기시대 키토이문화의 골제예술품과 원저토기·곰형상의 조형품, 청동기시대 글라즈코보문화의 사람전신상·인면·곰 등의 조형품, 울란하다-1 유적 출토 청동기시대 원저공렬문토기, 철기시대의 돌대문토기·청동거울·동검·암각화편, 현대 샤만 관련 장식품 등 프리바이칼 일대의 예술품을 시간 순으로 전시하고 있다.



말타 유적 골제예술품      글라즈코보문화 인물상      슈밀랴하 청동기유적 출토 골제품

<그림 21> 이르쿠츠크 예술박물관 주요 유물

### 3.1.15. 이르쿠츠크 대학 소장 유물 조사

이르쿠츠크 대학 연구원이 소장 중인 바이칼 호 최남쪽 키토이문화의 샤만카 고분 출토 골제 손가락·국자·돌날을 끼울 수 있는 흠이 새겨진 골도(骨刀) 등을 조사하였다. 또한 올가 고류노바 선생이 소장 중인 하다르타-4 청동기시대 고분군 출토 석부·사람이 그려진 공렬문토기 등과 쿠르마-1 청동기시대 고분군 출토 샤만 형상의 원형 청동기와 석부 등 글라즈코보문화의 중요 유물들도 확인하였다.



샤만카 신석기고분 출토 골각기      하다르타-4 청동기고분 출토 석부      쿠르마-1 청동기고분 출토 청동기

<그림 22> 이르쿠츠크 대학 소장 최신 출토 유물

## 3.2. 자바이칼 일대의 고고유적

### 3.2.1. 이볼가 홍노평지성<sup>3)</sup>(Иволгинское городище)

3) 국립문화재연구소(2001), 『한국고고학사전』 관련항목 인용편집

자바이칼의 대표적인 흉노 유적으로 방형의 평지성과 그 주변 무덤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올란우데에서 16km 떨어진 셀렌가 분지에 위치하고 있다. 평지성은 평면형태 방형으로 해자(壕子)가 있고 서벽은 길이 348m, 남벽은 216m, 북벽은 잔존길이 194m, 동벽은 파괴되었다.



이불가 평지성 남벽 전경

이불가 평지성 북벽 해자

&lt;그림 23&gt; 이불가 평지성 남벽 및 북벽 해자 전경

성 내부에서는 총 51기의 집자리와 600여 기의 저장구덩이가 발견되었다. 집자리는 크게 지상건축지와 수혈집자리로 구분되는데, 일반적인 집자리는 수혈집자리로 면적은 약 20㎡ 내외이다.

성내에서 발견된 다량의 명문자료, 발전된 토기제작기술, 전문화된 장인에 의해 만들어진 생활용구, 발전된 집자리 구조 등은 이불가 주민들이 상당히 한화(漢化)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며 흉노(匈奴)가 전문적인 기술을 습득한 한인(漢人)을 흡수해서 이러한 성지를 바이칼 주변에 건설해서 흉노의 대외확장을 위한 일종의 보급기지 역할을 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전면발굴이 된 이불가 무덤군에서는 총 216기의 무덤이 조사되었는데, 대부분의 고분은 적대세력에 의해 고의적으로 파괴된 것으로 추정된다. 피장자는 대부분 단인장이며 신전앙와장(身展仰臥葬)이다. 매장구조는 크게 나무널무덤(木棺墓)과 흙무덤(土壙墓), 그리고 소수의 통나무묘 및 돌덧널무덤(石槨墓)으로 구분되며, 이외에도 영아(嬰兒)의 독널무덤(甕棺墓)은 성터의 집자리 내부에서 발견되었으며, 무덤군 내에서도 몇 기의 옹관이 발견되었다.

유물로는 인골의 허리 부분에서 발견되는 청동제 허리 장식이 대표적이며 동복(銅腹)도 발견되었고, 골기로는 갑옷편, 철기로는 대구(帶鉤)·활촉 등의 장식과 무기류가 출토되었다. 무덤의 연대는 철도(鐵刀), 유공삼경촉(有孔三

莖鐵), 오수전(五銖錢) 등의 출토로 보아 B.C. 2~1세기로 편년된다.

이불가 평지성은 자바이칼의 흥노가 형성·발전한 과정을 추적하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데, 이불가의 주민들은 목축, 농경, 어업을 비롯하여 성 내에서 토기제작 및 금속제련을 했던 증거가 발견되어 성을 기본단위로 자급자족하는 생활을 했다는 것을 시사한다.

집자리에서 발견된 쪽구들은 한반도의 세죽리-연화보 유형과 두만 강 종류의 노남리와 토성리에서도 발견된 바 있으며, 중국동북지방과 연해주의 초기철기시대 단결-크로우노프카문화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는데 이불가 유적의 쪽구들은 최서쪽에서 발견된 것으로 초기철기시대 한반도 북부지방 및 연해주의 집자리 관련 연구에 좋은 자료를 제공한다.



수혈주거 복원 전경

수혈주거 내 쪽구들 아궁이

수혈주거 내 쪽구들 고래

<그림 24> 이불가 평지성 수혈주거 및 쪽구들 복원 전경

### 3.2.2. 노보셀렌긴스트 폰크트-3(Новоселенгинск Пункт-3) 케렉수르

울란우데 남쪽 노보셀렌긴스트 마을 주변에 위치하는데, 원형의 적석군과 그 주변의 원형 석렬, 석렬 외곽의 재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적석군만 지름 10m 이상인 대형의 케렉수르이다.



<그림 25> 노보셀렌긴스트  
폰크트-3 케렉수르 전경

### 3.2.3. 일리모바야 파디(Ильмовая Падь) 흥노고분군

부리야트 공화국에서 확인된 3곳의 흥노귀족고분군 중 하나로 흥노 황제

의 무덤으로 알려진 54호분 등 대형무덤 30여 기를 포함하여 전체 250여 기 정도가 확인된 대규모 고분군이다.

현재 부리야트 공화국 내에서만 흉노시대의 일반무덤군이 30~40여 개소가 확인되었는데, 공화국의 남쪽인 몽골 국경쪽에서 많이 보이고 있다. 고분은 평면 ‘ㅊ’자형으로 지상에서 시작되는 남쪽 돌출된 입구부에서 지하에 위치한 북쪽의 매장주체부까지 완만한 경사를 따라 시신을 안치하는 무덤길이 나 있는데 시신은 주로 목관이나 목곽에 안치(석관도 가끔 존재)하며 그 주위에 재물인 동물이나 토기·소지품 등 망자의 소유였던 유물을 부장하고 있다. 조사 전에는 평면형태가 원형으로 보이나 대부분 표토를 제거하면 방형이나 ‘ㅊ’자형으로 축조되는 정형성이 확인된다. 소형의 무덤은 따로 돌출부가 축조되지 않은 평면 방형으로 중앙부 함몰도 육안으로 관찰된다. 횡방향으로 석재를 쌓아 올려 매장주체부의 네 벽을 축조하였다.



54호분 조사 후 전경

흉노귀족고분 출입구

흉노귀족고분 매장주체부 측벽

<그림 26> 일리모바야 파디 흉노고분군 세부 전경

### 3.2.4. 자바이칼 민족학박물관



자바이칼 일대 판석묘

자바이칼 일대 케렉수르

샤트로바야 클라드카

<그림 27> 자바이칼 민족학박물관 야외전시물

울란우데 시내에서 약 6km 떨어져 위치한 대단위 야외박물관으로 사슴돌, 판석묘, 케렉수르, 선돌, 6~8세기 투르크인들의 무덤, 암각화 등 자바이칼 지

역 고고문화의 모든 유형을 전시하고 있다.

이불가 평지성에서 조사된 흥노의 쪽구들주거지 또한 전시 중인데, 쪽구들은 판석으로 아궁이와 측벽을 축조한 후 점토를 발라 마무리하였으며 주거 북동모서리에 아궁이를 꾸미고 북벽과 서벽을 따라 화기가 진행되는 구조이다. 흥노 주거지는 남쪽에 출입구가 있는 반수혈주거로 지붕에는 서까래를 올린 후 자작나무껍질을 깔고 그 위에 흙과 잔디를 올려 꾸민 맞배지붕구조로 복원된다.

에벤키인들의 유적복합체에는 여름주거와 겨울주거, 고상창고, 샤만의 집 등이 이전복원되어 있는데 샤만의 집 주변에 있는 솟대와 장승 등은 한반도 무속 신앙과 매우 유사하다.

그 외 부리야트인들의 서민주거와 귀족주거, 근현대 러시아 이주민들의 주택, 교회당 등 자바이칼 일대 전시기의 구조물들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다.



에벤키 샤만의 집 전경      샤만의 집 내부 동물조각상      샤만의 집 내부 새조각상(솟대)  
 <그림 28> 자바이칼 민족학박물관 에벤키 샤만의 집

### 3.2.5. 부리야트과학센터 박물관

러시아과학원 시베리아지부 산하의 기관으로 고고실, 자연사실, 민속실 등의 전시관을 운영 중이다. 고고실에는 포파노보 신석기시대 고분군, 샤만스키 믹스 고



포파노보 고분군 출토 인골      일리모바야 파디 출토 유물      샤만스키 믹스 출토 유물

<그림 29> 부리야트과학센터 박물관 전시유물

분군 등 자바이칼 일대 주요 유적 출토품을 시기별로 체계적으로 전시 중이다.

일리모바야 파디 고분군 등 자바이칼 일대 흉노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 조사를 실시하는데, 토기로는 B.C. 3세기부터 기원 전후 시기에 속하며 고구려 토기와 유사한 니질태토에 구연부 암문이 잔존하며 회전물손질을 한 대형토기로 저부 외면 중앙에 회전대의 중앙을 표시한 흔적이 잔존하는 흑회색 호와 정방형으로 9개의 원공이 있는 화분형의 시루 등을 확인하였다. 그 밖에 기마민족 특유의 청동제 및 금제 장신구, 골제 놀이기구, 청동삼익촉, 반납전 등의 중국 동전, 정교한 문양이 새겨진 골제품, 골제 바늘통, 혁대 장신구, 마구 등의 다양한 유물들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였다.



일리모바야 파디  
50호분 출토 토기

드야레스투이스키 흉노고분군  
118호분 출토 장신구

장식 골제품  
(출토지 미상)

<그림 30> 부리야트과학센터 박물관 소장 주요 유물

#### 4. 바이칼 일대 고고문화의 특징

시베리아는 예로부터 한민족문화의 기원으로 언급되어 온 지역이다. 주로 시베리아 원주민 샤먼과 관련한 민속학에서의 연구, 바이칼 일대 부리야트인 등 현지 시베리아 원주민에 대한 민족지학적 연구와 유전학적인 유사성에 근거한 한민족의 기원 연구, 음운학적인 유사성을 중시하는 언어학적 연구, 시베리아 암각화의 도상 해석 연구 등 인접학문 분야의 연구성과와 함께 고고학에서는 바이칼 일대 고고문화와 한반도 선사문화와의 관계에 관심을 가진 연구들이 진행된 바 있다.

#### 4.1. 프리바이칼 신석기시대 원저토기문화와 한반도 빗살무늬토기

바이칼 일대의 고고문화 중 조사와 연구가 활발히 진행된 프리바이칼의 신석기시대는 아무르·연해주와 한반도, 일본에 이르는 환동해지역의 평저토기 문화와 구별되는 원저토기문화 요소가 일찍이 주목된 바 있다. 프리바이칼 지역은 신석기시대 첨저의 빗살무늬토기가 주를 이루기에 일찍이 우리나라 빗살무늬토기의 기원지로 주목받아왔다. 하지만 프리바이칼의 신석기시대 토기의 상한이 한반도의 그것과 비교하여 그렇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며, 빗살무늬 중에서도 점열문, 단사선문, 격자압인문 등의 시문방법이 주로 침선이 아닌 압인문이 주를 이루는 등 한국 신석기문화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바이칼 지역의 토기문화에서 한국 신석기시대의 직접적인 기원을 찾는 것은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지만, 동아시아에 폭넓게 존재한 평저토기의 전통 속에서 유일한 첨저토기의 전통이라는 측면에서 두 지역 간의 생계 경제체계나 주거지 입지조건 등을 비교하는 것은 여전히 한국 신석기시대 연구에서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최몽룡 외 2003:164).

#### 4.2. 바이칼과 극동의 암각화

바이칼 지역에 분포하는 많은 암각화들은 대부분 구체적인 형상을 표현하고 있는데, 말이나 사슴 등의 동물상과 샤먼상, 추상적인 기호 등 다양한 구성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해가 뜨는 동쪽면에 위치한 대형 바위면에 하늘과 지상을 이어주는 신성한 새인 백조, 역삼각형 머리와 역사다리꼴 몸을 가진 건장한 샤먼, 다리를 벌린 채 출산 중인 여성 등이 표현된 사간 자바-1 암각화는 바이칼 일대 암각화 중 가장 다양한 구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적이다. 시베리아 암각화는 예니세이 강의 상류 손두기와 고르노알타이 우코크의 베틀텍, 아무르 강의 사카치 알리안 유적 등이 잘 알려져 있는데, 현재 북한 지역의 암각화가 알려져 있지 않아 아무르 강의 암각화문화가 동해를 거쳐 바로 포항이나 울산 등 한반도 남동부 해안으로 전파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최몽룡 2008:12-13). 이는 육로를 통한 주요한 문화의 흐름과 별개의 문화 흐름으로도 볼 수 있어 향후 유라시아 암각화에 대한 정교한 도상비교 등 추후의 연구가 기대된다.

### 4.3. 중세시대 프리바이칼의 무덤 · 의례유적

프리바이칼 일대에서는 시기에 따른 다양한 양식의 무덤·의례유적이 확인된다. 앞서 살펴 본 것처럼 신석기시대에서 철기시대에는 토광묘와 석관묘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 뒤를 이어 초기중세시대인 5~10세기에는 판석을 비스듬히 세워 쌓아 사각뿔 모양으로 만든 ‘샤트로바야 클라드카’라는 독특한 구조물이 축조된다. 지상구조물이며 출토유물이 거의 없어 명확한 용도는 확인되지 않으나, 나무로 만든 민족지자료에 근거하여 태반을 넣은 토기를 안치하는 의례시설로 파악되고 있다. 11~13세기에 이르는 몽골시대에는 큰 괴석의 아래쪽에 매장주체부를 마련한 무덤이 축조되기도 하였다. 17세기 이후 근대에 접어들면 부리아트인의 지상식 무덤이 축조되는데 판석으로 측벽을 구성하여 시신을 안치한 후 다시 판석을 덮은 구조이다. 언덕의 사면에서 암맥이 노출된 경우, 이를 한 면으로 이용하여 축조하기도 한다. 현재 일부 무덤에서는 육안으로 인골을 안치된 것이 확인되며, 겨울에 매장한 경우에는 시신을 운반한 썰매 등의 시신운반공구를 함께 부장하기도 한다. 바이칼 일대의 야트막한 언덕의 사면에서는 이렇게 판석으로 세워 축조한 근대 부리아트인의 무덤이 다량 확인되고 있다.

### 4.4. 프리바이칼 초기중세시대의 성곽

프리바이칼의 5~10세기 초기중세시대의 유적으로 ‘샤트로바야 클라드카’와 함께 또 하나 주목되는 유구는 돌담으로 둘러싸인 성곽이다. 시베테-1과 하르고이-2 유적은 바이칼 호변 돌출된 곳의 남사면에 돌담을 쌓아 내부 공간을 구분한 성곽이다. 프리바이칼 소해협에 위치한 시베테-1 유적은 2열의 돌담이 남사면에 축조되어 있는데 돌담의 사이에서 주거지의 잔존 석재구조물이 확인되었다. 올흔 섬 내부에 위치한 하르고이-2 유적의 돌담은 단순히 자연석을 쌓은 시베테-1 유적과는 달리 켜기형의 큰 돌을 외면으로 쌓고 내면에는 작은 돌을 채워 넣어 더욱 정연하게 축조하였다. 또한 돌담의 상면에는 선돌처럼 높이가 1m 이상인 길쭉한 돌을 열지어 배치하여 더욱 웅장한 느낌이 든다. 돌담의 남쪽 완만한 경사면에는 북서풍을 막기 위한 개인 주거용 돌담이나 돌로 쌓은 가축 우리 잔존물이 여러 기 잔존해있다. 이들 성곽은 기능적으로 방어용 구조물로 보이나, 유목민족의 계절적 이동거처로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 4.5. 자바이칼의 흉노 평지성과 고분군

바이칼의 동쪽 자바이칼에는 현재 몽골인들의 자치국인 부리아트공화국이 위치한다. 국경이 확립되기 전 바이칼 일대는 몽골인의 지배하에 있던 영역이었으며, 그 이전에는 시베리아 초원문화의 영향권에 있으며 흉노 등 유목제국의 근거지로 기능한 역사를 지닌다. 특히 유목민인 흉노가 기마술에 근거해 주변 지역을 정벌하면서 발전된 기술을 받아들이고, 토기제작 및 금속제련을 하는 등 생산 기지로 기능하게 한 이불가 평지성은 자바이칼의 흉노가 발전해 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적이다. 이불가 평지성 수혈주거에서는 난방시설로 쪽구들이 축조되어 주목된다. 이는 현재까지 확인된 쪽구들 분포범위의 최서편이다. 몽골 초원에서는 중세시대 거란 친톨고이 평지성에서 발해유민이 축조한 3층의 쪽구들이 확인되어 주민의 이주에 따른 문화전파를 보여주었다. 선사시대 흉노 이불가 평지성에서도 극동의 쪽구들 축조 집단인 단결·크로우노프카문화인들을 이주시키거나 문화교류를 통해 발전된 난방시설을 도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흉노 귀족무덤군인 일리모바야 파디 고분군은 노용울, 골모드, 도르릭나르스 등 몽골의 흉노 귀족무덤군들과 동일한 양상을 보여주어 흉노 연구가 국경을 넘어 국가간의 협력이 절실한 이유를 보여준다.

### 5. 맺음말

러시아 시베리아동부 프리바이칼 소해협 일대와 자바이칼 울란우데 근교와 남쪽 카흐타 지방을 중심으로 한 2010 시베리아 동부 유적분포현황조사를 통해 주요 유적의 현황을 파악하고, 유적에 관한 자료를 획득할 수 있었다.

이번 공동연구를 통해 느낀 점을 정리하며 본고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우선 시베리아 동부 바이칼 일대의 고고유적과 민속문화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시베리아 동부 중에서도 일부인 바이칼 주변만 하더라도 광대한 영역이다. 그나마 프리바이칼에서는 앙가라 강 주변과 바이칼 소해협 일대를 중심으로 많은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자바이칼 또한 셀렌가 강과 러-몽 국경 일대에 대한 조사가 행해져 지역문화상이 잘 정립되어 있다.

이를 기반으로, 러시아학계가 기초사한 성과의 국내학계 소개 및 공동연구 등 이 일대 유적·유물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프리바이칼·자바이칼 일대는 신석기시대 빗살무늬토기문화, 청동기-초기철기시대 판석묘문화 등의 선사문화에서부터 역사시대의 흉노 평지성과 고분군 등 동북아시아 역사 전체적인 맥락에서 한반도와와의 관련성이 확인된다. 러시아과학원 시베리아지부 이르쿠츠크 고고학고환경연구소, 이르쿠츠크 대학, 러시아과학원 시베리아지부 부리야트학술센터 등 연구기관과의 접촉을 통해 자료 수집 및 공동연구를 진지하게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자바이칼 지역 원주민인 에벤키 사만의 전통주거에서 확인되는 솟대와 장승 등의 의례용구는 현재 우리의 민속신앙과 너무도 유사하다. 17세기 러시아인의 동진(東進)으로 인해 인구와 영역이 급격히 줄고 있는 시베리아 일대 원주민의 전통문화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민속학에서 막연하게 한민족의 시원으로 언급하는 바이칼 일대 원주민들의 전통문화가 더 이상 소멸되기 전에 우리의 시각으로 조사하고 이를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한반도와 시베리아의 문화교류는 단선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온 것이 아니라 각 지역별로 끊임없는 문화적 교류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고고학 문화요소의 단순한 유사성에만 집중하여 문화적 전파나 이동을 말하기 전에 시베리아 고고학의 본질적인 요소에 대한 기본연구가 선행될 때 민족문화의 기원과 형성 등 올바른 역사상이 정립될 것이다.

※ 본 글의 작성에는 대한민국 국립문화재연구소와 러시아과학원 시베리아지부 고고학민족학연구소가 공동으로 실시한 2010 시베리아 동부 유적분포 현황조사에 참여한 연구원들의 노력이 있었음을 밝혀둔다.(직위생략)

- 한국 측: 윤광진, 이규훈, 김동훈, 임누리
- 러시아 측: S. Hesterov, V. Mylnikov, L. Lbova, O. Goryunova, A. Nobikov

## 참고문헌

- 강인욱(2006) 「시베리아 고고학 연구성과와 과제: 한국·중국동북지방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선사고고학보』 12, 49-57.
- 강인욱(2009) 『춤추는 발해인』, 주류성.
- 국립문화재연구소(2001) 『한국고고학사전』.
- 부산박물관·서울대학교박물관·몽골 과학아카데미 고고학연구소·몽골 국립박물관(2009) 『몽골, 초원에 핀 고대문화』.
- 사단법인 중앙아시아학회·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2010) 『동아시아 고대문화 속의 흉노』.
- 서울대학교박물관(2005) 『시베리아 고대문화 특별전 초원의 지배자』.
- 정석배(2000) 「先흉노-스키타이 世界 小考」, 『韓國上古史學報』 第32號, 29-74.
- 정석배(2008) 「쁘리바이칼 지역의 신석기문화」, 『한국 시베리아연구』 12:2, 29-89.
- 정재승 엮음(2003) 『바이칼, 한민족의 시원을 찾아서』, 정신세계사.
- 지병목(1999) 「시베리아 바이칼호 연안지역의 청동기문화: 초기 금속문화의 발생을 중심으로」, 『國史館論叢』 85, 국사편찬위원회, 53-97.
- 최몽룡(2008) 「多源論의 입장에서 본 한국문화의 기원과 시베리아」, 『東北亞細亞文化學會 第16次國際學術大會』, 東北亞細亞文化學會, 3-26.
- 최몽룡·이현종·강인욱(2003) 『시베리아의 선사고고학』, 주류성.
- Волков, С. Н.(2009) По Байкалу-путеводитель мини-энциклопедия, Иркутск.
- Горюнова, О. И., Свинин, В.В.(1995) *Ольхонский Район — Часть I Остров Ольхон*, Иркутск: Арком.
- Горюнова, О. И., Свинин, В.В.(1996) *Ольхонский Район — Часть II Материковый Участок: От Мыса Елохин До Мыса Улан*, Иркутск: Арком.
- Горюнова, О. И., Свинин, В.В.(2000) *Ольхонский Район — Часть III Материковый Участок: От Мыса Улан До Реки Большая Бузильдейка*, Иркутск: Арком.
- Цыбиктаров, А. Д.(1998) *Культура плиточных могил Монголии и Забайкалья*, Улан-Удэ.

**Abstract****The Archaeological Sites and Cultures of the Baikal  
in the Eastern Area of Siberia****Kim, Dong-Hun**

Based on the investigation to distributional pattern of the archaeological sites in the whole area along the coastline of Pribaikal strait, the outskirts of Ulanude, Zabaikal and the Kahta region in border line with Mongolia, this paper aims to elucidate the cultural relationships and the pattern of exchanges between the eastern area of Siberia, estimated to be one of the origins of Korean national cultures and the Korean peninsula from the Prehistoric Era to the Middle Ages.

This investigation to the distributional pattern of archaeological sites associated a survey to the recognised sites with ground surveys. A closer examination of the data collected by research institutes at universities and museums in this area helped us to identify the newly excavated data of the Siberian archaeology.

The most important outcome of this research was an identification of the fact that the Neolithic rounded-base pottery culture in the Pribaikal area and the Bronze stone-slab cist tomb culture in the Zabaikal were closely related with the prehistoric culture of Korean peninsula. Moreover, in the museums of this area we could collect invaluable data for the comparison of cultural exchange patterns between the eastern area of Siberia and the ancient Korea.

The cultural exchanges between the eastern area of Siberia and Korea had been occurring not in a unilinear way but by multilinear contacts amongst various cultural groups that had been located in both countries. In this context, the research to elucidate the origin and formation of the national culture of Korea that was related to Siberia could be established by the investigations to the basic elements of Siberian archaeology, not by the diffusion of cultural

traits and the ethnic migration based on the concentration on comparing the similar attributes of artifacts and features between two countries.

---

논문심사일정

논문투고일:	2011. 10. 24
논문심사일:	2011. 11. 1 ~ 12. 2
심사완료일:	2011. 12. 7